



보도시점

2024. 4. 1.(월) 11:00  
4. 2.(화) 조간

배포

2024. 4. 1.(월) 09:00

## 농식품부,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

- 현행 사료보다 단백질 함량 1~2%p 낮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-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4월 1일(월),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(사료공정서)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.

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·판매할 수 있다.

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('21~'23, 서울대·충남대·건국대)를 통해 한우, 돼지,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으며, 해외 사례 분석, 국립축산과학원,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하였다.

정부는 온실가스 감축, 분뇨냄새 저감,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에 돼지사료는 1~3%p 단백질 수준을 낮췄으며, 닭, 오리, 소 사료는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로 설정한 바 있다.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~2%p\* 낮아졌고,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\*\*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.

\* 돼지사료 단백질 1% 감소는 일일 총질소 배출 △7.7% 암모니아 발생량 △10~12%(21, 서울대)

\*\* (이유돈) 1.3% 이상, (육성돈) 1.0%, (비육돈) 0.8, (임신돈) 0.62, (포유돈) 0.9

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“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.”라고 하면서, “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## 붙임 질소저감사료 기준

담당 부서	축산정책관실 축산환경자원과	책임자	과 장	서준한 (044-201-2351)
		담당자	사무관	서주형 (044-201-2359)



## 붙임

# 질소저감사료 기준

### □ 정의(제2조)

- “질소저감사료”란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료를 말한다

### □ 성분등록 사항([별표13의4])

< 사료 내 단백질(라이신) 함량 성분등록 기준 >

구분	성장단계	과거 (‘16.12)	현행 (‘21.12)	개정 (‘24.4)	비고
① 돼지	이유돈	<전기> 21%이하	18%이하	17%이하	과거 대비 △2~4%p  현행 대비 △1%p, 라이신 최소량 신설
		<후기> 20%이하		<라이신> 1.3%이상	
	육성돈	<전기> 19%이하	16%이하	15%이하	
		<후기> 18%이하		<라이신> 1.0%이상	
	비육돈	<전기> 17%이하	14%이하	13%이하	
		<후기> 16%이하		<라이신> 0.8%이상	
임신돈	16%이하	13%이하	12%이하 <라이신> 0.62%이상		
포유돈	20%이하	19%이하	18%이하 <라이신> 0.9%이상		
② 닭(산란계)	산란전	-	17%이하	16%이하	현행 대비 △1~2%p
	산란초기	-	19%이하	17%이하	
	산란중기	-	18%이하	16%이하	
	산란말기	-	17%이하	15%이하	
③ 소(비육우)	큰소후기	-	15%이하	13%이하	

※ 성장단계 통합(‘21.12): 이유돈 전·후기→이유돈, 육성돈 전·후기→육성돈, 비육돈 전·후기→비육돈

### □ 표시 사항([별표15])

- [별표13의4]를 충족하는 경우 “질소저감사료”로 표시할 수 있음